

건설

산업이슈

2020. 09. 01

3단계 격상시 공사현장에 미칠 영향

D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

당연하지만 건설사들도 거리두기 3단계 대응방안 검토: 2분기 건설사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국내 건설현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걱정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사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인 이상 모임과 집회 제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공사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지침은 ①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 집회 금지, ② 민간기업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등이 있다. 물론 실제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세부지침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세부지침 중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 집회 금지가 눈에 띈다. 공사현장은 10인 이상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1개 현장의 전체 인원보다는 한번에 집합(식사, 회의 등)해야 하는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당수의 건설사가 3단계에 준하는 기준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현 시점에서 100인 이상의 모임, 집회가 금지되고 있는데 100인 이상의 현장 인원이 모이는 건설현장에서의 섣다른 사례는 없다. 물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장 인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현장 폐쇄가 불가피할 것이다. 재택근무는 현장보다는 본사에 영향을 미칠 이슈이며,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2~3교대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D Comment

3단계 강화 시 기성액은 감소할 전망: 공사현장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이 멈추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공사 진행이 느려짐에 따라 대형건설사의 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실적 하향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는 판단된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조건은 ① 다수의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와 ② 정부의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현장을 폐쇄하는 경우이지만 현 시점에서 고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D Action

실적보다는 수주가 관건: 3단계 강화 시 현장의 공사 진행률이 느려지는 것보다 줄지 않은 것은 신규수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발주처의 사업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합 총회 등이 미루어지면서 주택 신규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현장의 문제는 단기에 그치겠지만 수주 감소는 성장성의 훼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1년간 투자의견 비율 (2020-06-30 기준) - 매수(84.5%) 중립(15.5%) 매도(0.0%)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